

태광, 장하성펀드 평가이익 10억원

계열사 상한가 시가총액 2일간 2030억원 늘어 ... 대한화섬도 10억원

일명 장하성펀드로 알려진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KCGF:Korea Corporate Governance Fund)가 지배구조 개선의 첫 번째 타깃이 된 태광그룹 상장 계열주식들이 일제히 상한가로 직행해 시가총액이 2일만에 2000억원 이상 늘어났다.

이에 따라 장하성펀드는 대한화섬 투자로 현재까지 10억원 가량의 평가차익을 내고 있다.

8월24일 오전 11시 태광산업을 비롯한 3개 상장 계열주들의 시가총액이 장하성펀드의 투자 사실이 알려진 이래 2일간 2030억원 가량 늘었다.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은 워낙 움직임이 둔해 일평균 거래량이 각각 1000주, 1만주를 밑돌고 등락폭도 미미하기 때문에 최근 양사의 주가 강세는 놀랄만하다.

태광산업은 2일 연속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57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장하성펀드가 지분 5.15%를 확보한 대한화섬도 8만6400원으로 2일째 상한가를 기록했다.

계열사인 홍국쌍용화재도 매수세가 몰리며 가격제한폭까지 올라 6910원을 나타내고 있다.

이밖에 홍국쌍용화재2우E와 홍국쌍용화재우 등 2개의 우선주도 일제히 상한가로 직행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8월 초부터 홍국쌍용화재를 지속적으로 사들이고 있어 주목된다.

증권가에서는 경험상 주주와 경영진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국내기업들의 주가가 강세현상을 보여왔으며, 장하성펀드가 태광그룹에 대한 지배구조개선 활동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대한화섬 외에 태광산업이나 홍국쌍용화재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분을 매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주가 상승의 이유로 꼽히고 있다.

실제 장하성펀드 측은 대한화섬 외에도 태광산업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8월23일 현재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주식을 각각 3만9482주(236억4700만원), 7만326주(50억8300만원) 순매수했고 홍국쌍용화재에 대해서도 10만3300주(7억7600만원) 순매수했다.

주가 강세로 인해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는 현재 10억원 가량의 평가차익을 내고 있다.

미국의 투자자문기업인 Lazard Asset의 특별관계인인 Korea Corporate Governance Fund PLC와 LFNY Funding Ltd LLC는 4월부터 꾸준히 대한화섬 주식을 사들여 각각 6만7006주(5.05%), 1400주(0.10%)를 확보해 8월22일 총 6만8406주(5.15%)를 보유하고 있다.

최소 6만원에서 최대 9만원대에 대한화섬 주식을 매수해 평균 매입단가는 7만1591원, 총 투자자금은 48억 97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대한화섬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Korea Corporate Governance Fund PLC와 LFNY Funding Ltd LLC가 보유한 대한화섬 주식 가치는 총 59억1027만원으로 불어나 10억1300만원의 평가차익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저작권(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8/24>